

# 영어 번역에 뒷걸음질치는 출판문화

## 번역자 처우개선 등 오역의 구조적 처방 필요

이한우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개인적으로 가장 쓰기 싫은 글 중의 하나가 오역에 관한 것이다. 그동안 오역문제에 관해 많이 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혀 개선되는 것을 느끼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마냥 방치하지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분명 우리가 외래문물을 올바르게 수용하려면 그 첫단추가 올바른 번역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설이나 에세이류와 달리 학술서는 용어 하나하나의 번역이 이후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될 전범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오역비판은 무엇보다도 학술서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

### 사회전체의 논의 봉쇄한 오역

그런 점에서 최근 번역돼 영남대 박홍규 교수(법학)로부터 혹독한 비판(《교수신문》 11월4일자)을 받은 에드워드 사이드 지음 《권력과 지성인》(서봉섭의 옮김, 창)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만일 이 책이 제대로 번역됐더라면 90년대의 지식인은 누구인가에 관한 진지한 성찰의 계기가 됐을 것이다. 그것은 사실 60년대에 사르트르가 《지식인을 위한 변명》을 쓴 이후 근 30년만에 대가에 의해 저술된 지식인론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념의 몰락과 함께 지식인세계도 붕괴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지식인의 죽음’을 다시 한번 문체삼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런 기회를 박탈해버린 이 책의 번역에 대해 화부터 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박교수가 지적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자. 박교수는 단어 고유명사 문장 등으로 나눠 《권력과 지성인》의 오역실태를 지적한다. 사실 ‘지성인’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이미 오역의 가능성은 높았다. 지식인과 지성인은 엄연히 다르다. 예를 들어 기업인은 지식인은 될 수 없어도 지성인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어오역의 사례부터 살펴보자. ‘허구’로 옮겨야 할 부분을 ‘소설’로 옮긴 것은 어찌된 얘기에 불과하다. 어떻게 된 건지 ‘플라톤주의’가 ‘애국주의’로 번역돼 있다. 이에 대해 옮긴이는 필자와의 전화통화

잘못된 번역은 책도 죽이고

원저자도 죽이고

나아가 우리의

출판문화까지 죽였다.

저작권 강화로

그 출판사가 아니면

다른 데서 그 책을 제대로

번역해 낼 수 없는 상황이다.

제발 제대로 번역하는 풍토가

서둘러 자리잡힐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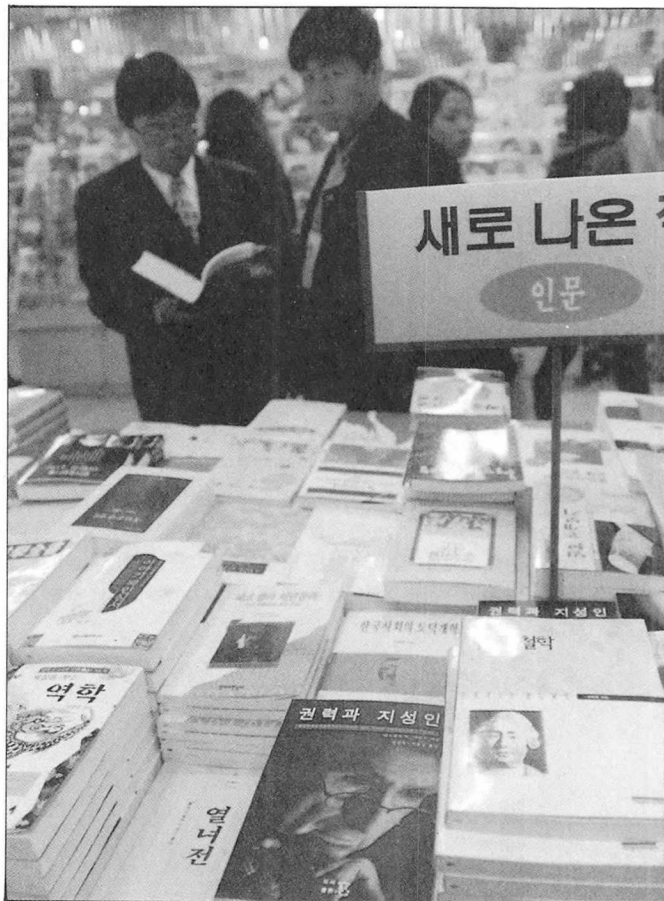
에서 ‘착각’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실’을 ‘실질’, ‘일상적’을 ‘공통적’이라고 하고 ‘토착주의’를 그저 ‘나티비즘’이라고 한데 대해서는 이렇다 할 설명을 하지 못했다.

고유명사의 오역은 번역자의 학문적 숙련의 정도와 독서폭을 드러내 준다는 점에서 결코 사소하게 보아넘길 것이 아니다. 주네가 게네, 발터 벤야민이 월트 벤자민으로 옮기는 것은 프랑스나 독일의 인명을 막연히 영어식으로 읽는 데서 생기는 오류다.

그러나 번역자가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그 사람들의 그 나라식 이름은 알아낼 수 있다. 에리히 아우에르바하가 어떻게 에릭 오바가 되고 쇤베르크가 쇼엔버그로 탈바꿈하는 것인지 역자의 일반상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이런 정도 되면 문장의 오역상황은 이미 짐작이 가능하다. ‘감상적 인물로 만들다’가 ‘시럽 속에 넣다’로 번역된 것은 ‘입각하다’가 ‘캐비넷 속에 들어가다’만큼이나 황당한 경우가 아닐 수 없다. ‘교양인(men of culture)’이 ‘남성들의 문화’로 번역된 것은 번역자의 영어에 대한 기본상식을 의심케 한다. 민족과 국가를 혼동하는 것은 기본이고 ‘과거에 있었던 그대로(the way it was)’를 ‘그것이 바로 길이었다’고 옮긴 부분에서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장이 길어질수록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우선 우리말로만 따져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울리시즈에서는 스티



오역 없는  
꼼꼼한 번역이  
출판계에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븐을 완고하고 반대를 일삼는 젊은이 이상으로 볼 수 없게 된다.” 이는 “《울리시즈》에서는 스티븐이 더욱 강한 불굴의 정신을 갖는 젊은이로 나타난다”를 완전히 잘못 옮긴 것이다.

한마디로 이번에 번역된 《권력과 지성인》은 오역의 전시장이다. 영어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 책내용과 관련된 지식에 대한 부족한 이해, 우리말 문장구성력의 미비 등 결코 번역을 해서는 안되는 사람이 번역에 손을 대 여러가지 피해를 야기한 대표적 케이스다.

### 오역 줄이기 위한 노력 중요

사실 최근에는 탄탄한 실력을 갖춘 번역자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오역에 대한 우려는 많이 사라진 상황이다. 간혹 어색한 표현이 들어있는 책들이 보이지만 분명 전반적으로 우리의 번역수준은 최근 2~3년 사이에 급격히 높아졌다. 여기에 느닷없이 《권력과 지성인》이 오역파문을 던진 것이다.

물론 좀더 엄격히 따진다면 보다 많은 책들이 오역의 혐의를 받고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필자의 경우도 여러차례 번역을 해보았지만 완전한 번역이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착오나 착각에 의한 실수를 막는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당초 능력이 안되는 사람이 번역에 손을 대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적인 문제라는 점을 자각하고 번역에 좀더 신중해야 한다. 더욱이 저작권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한번 잘못 번역되면 다른 출판사에서 손을 댈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아마도 이런 면에서 본다면 ‘중복출판’이 독자들에게는 보다 나은 번역서를 고를 수 있는 순기능을 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출간된 안정효의 《번역의 테크닉》, 김정우의 《영어를 우리말처럼》, 박정국의 《오역천하》 등은 오역을 개선해나가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책들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

# ‘제대로 된’ 번역 위한 지침서 활발

## 번역의 문제점 고발한 안내서 등… 관련 잡지도 속속 창간

다. 오역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역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제시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오역을 막을 수 있는 구조적 처방의 하나는 어떤 형태로든 번역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수준높은 번역자에게는 그만큼 많은 대가가 주어질 때 정성들인 번역이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때 번역풍토를 정상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인세의 정착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근본적인 처방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얼핏 생각하면 인세로 하는 것이 번역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많이 팔리는 극히 일부의 책에 한정된 이야기일 뿐 일반화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많다.

오히려 인세로 할 경우 실제 수입은 더 줄어들 수 있다. 학술서의 경우는 특히 그렇다. 예를 들어 원고지 2천5백장의 원고를 넘기고 번역료 2천원으로 할 경우 5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세로 하면 책값 1만2천원일 경우 10%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초판 1천부 1백20만원에 불과하다. 사실 이것은 필자의 경우이기도 하다. 오히려 이런 경우 사명감을 가져야 인세라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수입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곧 인세계약이 될 수는 없다.

### 제대로 번역하는 풍토 기대

인세계약은 반드시 확산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이유는 수입보장이 아니라 책에 대한 번역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그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세계약제는 우리 출판계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없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 《권력과 지성인》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례가 단적으로 보여주듯 결국 잘못된 번역은 책도 죽이고 원저자도 죽이고 나아가 우리의 출판문화까지 죽였다. 올해 7월부터 저작권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출판사가 아니면 다른 데서는 그 책을 제대로 번역해 낼 수 없는 상황이다. 제발 제대로 번역하는 풍토가 서둘러 자리잡히길 기대한다. ◆

인터넷으로 세계의 정보가 시차없이 교류되는 이즈음, 번역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최근 책임있게 번역되어야 할 학술 이론서의 오역사례가 늘어감에 따라 ‘번역’ 문제에 관한 관심이 새롭게 환기되고 있다.

### 오역사례 예시로 올바른 번역법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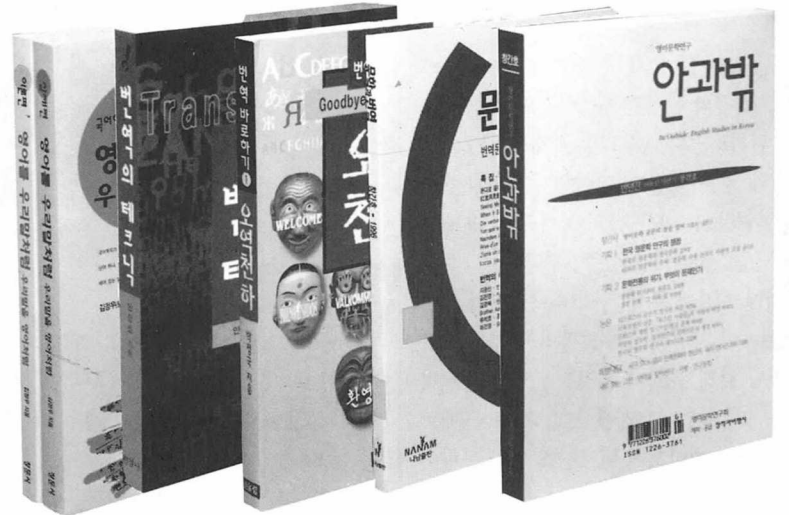
그런 가운데 번역문제를 진지하게 다룬 단행본 출간이 늘어 관심을 끈다. 외국이론서와 외국소설이 서점을 점령하다시피해도 번역에 관해서는 그 기준이나 지침이 될 만한 관계서적 한 권 없던 것이 지금까지의 실정. 이 번역계의 열악함을 환기시킨 것은 지난 9월 발간한 안정효씨의 《번역의 테크닉》(현암사) 덕택이다.

번역가이자 소설가인 안정효씨는 20여년 번역 작업을 해온 베테랑. 그간의 경험을 살려 기존의 ‘조교의 대리번역’ ‘여럿이 찢어 번역하기’ ‘일본판 중역’ 등 무성의한 번역태도를 고발하고 번역의 여러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번역하는 이들에게 일종의 지침서 역할을 하도록 자신의 체험과 번역 실습까지 꼼꼼하게 제시했으며 《킬리만자로의 눈》을 예로 들어 오역의 사례를 상세히 설명했다.

책의 말미에는 한때 한달에 한권 꼴로 소설 번역을 해내 ‘월간지’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던 그의 150여편에 이르는 번역 작품 연보가 달려 있다. 발간 직후 이 책은 석달 만에 3만부가 나가 저자와 출판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경남대 국문과 김정우교수가 쓴 《영어를 우리말처럼 우리말을 영어처럼》(창문사)은 다양한 실례를 들어 우리말의 올바른 구사를 역설한다. 전 2권(이론편, 실제편)으로 구성된 이 책은 영어번역의 일반이론을 설명한 뒤 소설 연설 학술 등 분야별 번역사례를 예시하는 방식으로 올바른 번역법을 안내하고 있다.

영자신문 교정기자 출신 박정국씨의 《오역천하》(어울림)는 오역을 중심으로 번역의 실례를 보여준다. 베스트셀러에 나타난 오역을 조목조목 따졌다. 박씨는 “사회윤리를 따지는데 핏대를 올리는 지식인들이 스



스로의 부실공사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오역투성이 역서를 버젓이 내는 출판사의 실종된 서비스정신을 개탄한다. 그밖에 번역관계서적으로 일서를 번역한 《번역프린서의 길》(한얼)이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은 직업으로서의 번역가를 소개하는 책이다.

### 번역문화 관련 연구잡지 창간 활발

번역문화의 지평을 여는 잡지 창간도 근래들어 활발하다. 연세대 번역문화연구소(소장 이성일)가 무크 《문학과 번역》(나남출판)을, 영미문학연구회(대표 이종숙·설준규)가 반년간 연구지 《영미문학연구 안과 밖》(창작비평사) 창간호를 냈다. 그간 번역전문지는 창간된 지 1년 안팎의 《번역의 세계》 《번역나라》 《번역가》 등이 발간되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문학번역을 검증하는 연구서’와 ‘우리 문학을 외국에 소개하는 잡지’라는 입장을 천명한 이 두 잡지가 참여하여 내실을 다지게 되었다.

연세대 번역문화연구소의 부정기 간행물 《문학과 번역》은 외국문학의 번역보다 빈약한 우리문학의 외국어 번역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간 우리문학 번역사업은 문예진흥원과 몇몇 문학재단에서 담당해왔을 뿐이어서 민간에서 우리문학을 외국어로 번역, 소개하는 작업은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호에는 구한말의 석학이자 우국지사였던 매천(梅泉) 황현(黃炫)의 한시를 특집

으로 현대국어와 중국어·영어·독어·불어·러시아어로 번역, 소개했다. 매호마다 특정 문인을 선정해 작품을 번역 게재할 예정. 또 지난해 12월 번역문화연구소가 〈번역의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개최한 제1회 심포지엄 발표논문들과 토론요지를 수록했다. 〈번역의 언어학적 성찰〉 〈시인과 번역〉 〈번역과 포스트모더니즘〉 〈홍종우의 《춘향전》 번역의 문제점〉 등이 그것이다.

주체적인 시각에서 영미문학을 연구하려는 목적으로 창립된 소장영문학자들의 모임 ‘영미문학연구회’의 성과물 《영미문학연구 안과 밖》은 ‘국내 영문학 연구의 깊이를 유지하면서 대중과의 만남을 확대하자’는 취지의 연구서.

편집주간 윤지관 교수(덕성여대 영문학)는 “전공자가 전공자의 영역을 감시하여 번역을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주요 작가들의 번역본을 면밀히 점검하고 고전뿐 아니라 현장 유통되는 번역물의 질적 판단 기준을 확립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영문학자의 몫”이라고 《안과밖》의 지향점을 밝힌다.

이렇듯 그간 문제제기조차 없던 번역에 대해 관심이 고양되고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 징조다. 번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검증할 만한 전문기관의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과 번역인세의 확립으로 번역자들이 책임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이 선결과제로 꼽는 사안이다.

—마정미 기자